최종칠 장로

미국 남가주에서

**기찻길 – 제일 좋은 축복은**

**기차역으로 가는 출근길에 기독교 방송에서, 두번째로 축복 받는것이 사랑을 받는것인데, 첫번째로 축복 받는것이 무엇 일까요? 청취자에게 물어 보았다. 기차역에서 도착해서 출근 기차를 타고, 라디오에서 듣은 얘기를 문자로 애들한테 발송 했는데, 며느리도 출근길에 그 방송을 들었다고 연락이 오고  
딸이 바로 정답을 보냈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장난감 기차를 무척 좋아 해서 모형기차를 조립 하곤 했고 길 가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길을 멈추고 서서구경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차로 매일 출퇴근 하게 되었다. 장시간 운전을 안해도 되니 편리 하다.  
  
첫번째로 축복 받는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을 받는것 도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을 사랑 한다는 것은 더 할 나위없는 축복이다.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정말 눈물의 씨앗일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4월 QT에 고전 13장 4-7절 인용 해서  
위 구절을 다시한번 묵상 하면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세월을 보낸것 같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고차적인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조 이시다. 창조주가 만든 사랑의 정의로 원작자의 의도로 사랑을 해야 올바른 사랑이지, 그 외의 방법의 사랑은 사랑이 아닐 것 이다.  
  
이세상에 태워난것 자체가 창조주로 부터 사랑을 받을것이다. 태워나면서 부터 우리는 두번째 축복인 사랑을 받은것이다. 다름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부터 원천적인 사랑을 받을것이다.  
  
우리는 사랑 받기위해 태워 난기 보다는 사랑 을 받아서 태워 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세상에 보내신것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든것들 내려놓고 겸손히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위해 죽으신것은 하나님께서 정의한, 의도한 사랑을 보여 주고 행한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 부터 사랑을 받았다.  두번째 축복을 받으며 태워 났다.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 사랑을 하면, 우리는 첫번째 축복인 사랑하는 축복 도 받게 되는것이다.  
  
사랑 받는 축복 과 또 사랑 하는 축복 모두 받게되는 것이다. 첫번째 와 두번째 축복을 모두 받은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첫번째 축복 도 가지게 되는것 이다.   
  
고전 13장에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기록된 사랑의 정의대로 사랑 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정의한, 의도한, 보여주신 대로 사랑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여기 기록 한 것 하나하나를 반대로 한적이 더 많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바로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지 못하며   
모든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지 못 하느리다.  
  
18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d](https://www.biblegateway.com/passage/?search=Romans+7&version=KLB#fko-KLB-27400d)**]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18-19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 할것 이다. 그래서 주님이 매 순간 필요 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많은 성도들이 동감을 하니 그런 찬송 나온것 같다.  
  
고전 13장 4-7절에 정의 된, 창조주가 의도한데로 지금 부터 다시 시작 하는것 이다. 올바른 사랑을 해야 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의 가장 좋은 조언이고 명언이고, 축복 받는 길이다.  
  
기차는 칙칙 폭폭 꽥꽥 고동소리내고 하얀 여기를 내 품으며 고요한 해변가의 아침을 깨우며 어느덧 내가 내릴 기차역 도착 했다. 일이 있기에 감사 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하고 자동차 운전대에 손을 옳려 놓고 다음단계를 개발 하기 의해서 연구소로 발을 향한다.**